

자기발견 교육

카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이현경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교육위원

1. 들어가면서

전국 주요 공단지역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활동을 벌이는 노동사목은 70년대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부터 오랫동안 다양한 활동 경험을 축적해 왔다. 특히 교육 면에서 자기발견교육, 또는 감수성 훈련 교육이라는 고유한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실시해 왔다. 이번 호에서는 노동사목에서 실시하여 노동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던, <자기발견 교육>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에 실시한 자기발견 교육은 그 동안 이 교육을 실시해 본 경험이 있는 각 지역 노동사목의 실무자들이 '전국사목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집단적으로 그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노동자 대상의 교육으로 개발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연구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교육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발견 교육은 기존의 노동교육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노동자 자신의 모습이나 삶, 인간관계 등을 정면으로 다루는 교육이며, 그런 면에서 보편적인 노동교육에서 얻지 못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번 사례는 노동교육의 질적인 전환 필요하다 관점에서 신선한 자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기획과정

가치관과 인간 관계를 고민해 보는 교육

카톨릭 노동사목 전국협의회에는 각 지역의 사목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논의가구인 교육위원회가 있으며, 그 안에 인성교육의 개발에 전망을 두고 있는 '인성교육 소위원회(이하 교육소위원회)'가 5명의 멤버로 꾸려지고 있다. 이 소위에서는 기존의 노동교육 즉, 주입식이며 참가자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객체가 되어 교육 내용

이 자신의 것으로 체화될 수 없는 교육은 한계에 봉착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해 왔다.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해 본 노동사목의 교육 속에서 많은 성공 사례들을 보면서 이를 노동교육에 적극 도입해 보고자 하였다. 그런 의도로 소위 성원들은 노동사목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이론적 배경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서강대의 상담심리교육 과정에 참가하여 적게는 두 과정, 많게는 다섯 과정을 이수하였다.

그런데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이를 방법적으로 노동교육에 적용하는 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고, 교육 소위원회 구성원들 내에도 시각 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크게 두 가지의 시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기존의 노동교육에 <자기발견교육>의 일부를 방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독자적인 인성교육으로 가면서 기존의 노동교육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이 프로그램을 방법적으로 잘못 적용하면, 이도저도 아닌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단계에 따라, 교육 대상에 따라 확연히 구분되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후자의 견해이다. 이번에 사례로 제시하는 이 프로그램은 후자의 시각을 가진 실무자의 개별적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교육의 목표는 “나와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보다 열려진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였다.

이 교육 준비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참가자를 조직하는 문제였다. 이 교육을 실시한 지역에는 노조운동 경력이 근 10년이 되는 간부들이 상당수 있는데 이들은 여러 측면에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노조운동이 삶의 전망으로 다가오지 않는 문제 등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런 중견 이상의 간부들에게는 가치관과 인간 관계를 고민해 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또 교육 참가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이 교육의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가능하면 교육의 평가 과정에서 이 교육의 효과까지 같이 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슷한 조건과 문제의식을 가진 중견간부들로 참가자를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3. 진행자의 역할

마음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 교육은 인간관계와 감성적인 측면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자가 성패를 가른다고 할 정도로 진행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을 하기 전에 진행자의 역할을

공유하였다.

다음은 진행팀의 전제조건과 진행자의 유의사항이다.

4. 진행과정

진행자의 전제조건

1. 불유쾌하거나 긴장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인격적인 응답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
2. 연설 따위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허심탄회하게 자기자신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3. 참석자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도록 하며, 격려할 수 있어야 하고, 참석자들의 재능과 경험, 통찰력을 믿어주어야 한다.
4. 대화의 기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개인적으로 친근한 방법으로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한다.

진행시 유의사항

1.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그들을 경험 없는 애송이로 생각하고 올바르게 고쳐 주려고 노력한다면 큰 잘못이다. 또한 그들을 미성숙하다고 여기거나 험악한 세상의 가엾은 희생자로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2. 당신 자신이 결정한 일에 가치를 부여하라.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눌 때 가장 큰 유혹은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단번에 말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일 필요가 있으며 남의 태도나 말을 흉내내어서는 안된다. 모방을 통하여 한 사람의 젊음을 또다시 재현시키려 하는 것은 틀림없이 모욕적이고 불유쾌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3. 정직하자. 우리가 특별히 지도자로 선택받은 것처럼 보일 필요도 없고 매우 훌륭하고 완벽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필요도 없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참가자들에게 우리의 우월감을 나타내게 되고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효과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된다. 우리는 그들이 지도자들을 유감스럽게 여기거나 우리의 인품에 압도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이 바로 우리가 불완전하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 속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다른 사람도 우리에게 속할 수 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를 원한다.
4. 참석자들을 존중하자. 그들에게 어머니나 아버지처럼 행동하지 말며 부모와 자식의 관계 혹은 선생과 학생의 관계와 같은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하자. 우리는 자신을 알이감으로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알게 된다. 전과는 달리 이제는 귀를 기울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말의 이면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에 귀를 기울이고 소리로 되어 나온 말뿐만 아니라 마음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전체 일정

회수	주제	일시	내용
1	만남의 마당	1997. 4. 9. 저녁 7시-9시	보다 열려진 자세로 만나는 기본 만남의 시간
2	나를 찾는 마당	1997. 4. 16. 저녁 7시-9시	성격검사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3		1997. 4. 23. 저녁 7시-9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
4	서로를 아는 마당	1997. 4. 30. 저녁 7시-10시	나와 다른 타인들과 나눔을 통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체험하는 시간
5	내일을 여는 마당	1997. 5. 7. 저녁 7시-9시	교육과정 속에서 얻은 경험으로 더욱 기본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

만남의 마당 - 미래의 내가 희망하는 것

〈 만남의 마당 〉은 1. 환영의 시간(10분)을 통해 교육장 및 부대시설 이용 등 기본적인 인내를 하고, 2. 도움이 되는 힌트(20분)에서 교육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주체적인 교육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였다. 다음에는 3. 친교의 시간(30분~40분)으로 작은 종이를 나누어주고, 그 종이에 각기 별칭을 쓰도록 하였다. 별칭으로는 호나 별명, 자연이나 사물의 이름, 자신이 좋아하는 단어 등을 정하게 했다. (예를 들어: 사각사각, 나무, 사랑 등) 다음에는 서로 소개하는 시간으로 서로 별칭을 얘기하고, 그 별칭을 택한 이유를 말하고, 자신의 장점이나 단점, 가장 잘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요즘 가장 갖고 싶은 물건 등을 말하도록 하였다. 다음에는 4. 세사람씩 경험 나누기(30~40분)를 하였는데, 진행팀을 포함하여 세 명씩 짝을 지어 마주보고 앉아 나누어 준 종이의 빈칸에 글을 써넣어 문장을 완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일차적으로 세 사람이 서로 자신이 완성시킨 문장과 이유에 대해 1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였다.

나의 삶에서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이다.

올해 나의 목표는 ()이다.

나의 생애에서 가장 행운의 날은 ()이다.

다음에

는 다른 세 명씩 짝을 지어 앉아 같은 방법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내가 가장 편안한 시간은 ()이다.

나 자신에 관한 것 중에서 꼭 변화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한다.

가지는 ()이다. 미래의 나는 ()을 희망한다.

같은 방법으로 다른 세 사람이 짝을 지어 역시 10분간 이야기하도록 한다.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이다.

살아오면서 내게 가장 좋은(혹은 나쁜) 기억은 ()이다.

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는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

이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모두 동그랗게 모여 앉아, 눈을 감는 등 편안한 자세로 진행자가 읽어 주는 만남의 중요성에 대한 에세이를 듣고 끝낸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이 교육은 입학식 등 형식적인 절차를 모두 없애고, 진행팀도 참가자의 일원으로 동등하게 참여하는 등 교육의 주안점을 솔직하고 동등한 만남에 두었다. 어떻게 보면 규율이나 질서 및 체계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는데, 이런 교육의 특성상 편안하고 진실한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나를 찾는 마당 1 - 인간관계를 보다 편안하고 원만하게

〈나를 찾는 마당1〉은 크게 1. 대화법(1시간), 2. 성격 검사(1시간), 3.정리하는 시간. (에세이: 나는 올바른 대화를 하고 있나)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대화법은 올바른 의사소통을 위한 '반응과 경청' 이라는 주제를 강의하는 것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참여지향적이고 강의를 없앴다는 점에서 볼 때 유일하게 튀었고, 다른 주제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교육이기도 했다. 이 역시 진행자끼리 교육에 대한 상과 의견이 통일되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면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조화를 이루지 못해 효과를 얻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 다음으로 성격검사를 하였는데 이는 성격을 좋고 나쁨으로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

라 단지 자신의 특성과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다. 즉, 이 검사는 내가 사과를 더 좋아하는가, 배를 더 좋아하는가를 보여줄 뿐,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배를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를 나눌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나와 타인의 성격을 알고 이해함으로써 인간관계를 보다 편안하고 원만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 검사는 여러 가지 문항에 응답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 그 검사의 결과를 분석하고 서로의 이해를 돕는 과정은 다음 시간으로 미루었다. 다음 3회 교육의 준비 교육 성격을 지닌 셈이다.

나를 찾는 마당 2 -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과정

〈나를 찾는 마당 2〉는 앞 시간의 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자신을 이해하고, 그 자리에 참석한 다른 동료들의 성격과 비교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과정이었다. 지난 시간에 작성한 검사지를 통해 이미 각 개인의 성격 유형은 나타나 있지만, 그 결과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의 기본 척도 8가지를 설명해 준다. 그러면 자신이 먼저 자신의 성격을 추측해 보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추측해 본 것과 진단 결과를 함께 비교 분석하는 가운데, 스스로가 이해하고 있는 성격이 실제와 다르다면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 동일한 사람인데도 검사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나왔나, 혹은 검사결과와 성격유형이 정말 자기에게 편안하게 받아들여지는가를 스스로 질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성격검사를 나침반으로 자신의 행동양식이나 삶의 방법을 결정하는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재미있었던 것은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추측한 것과 진단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앞서 제시한 척도 중 네 가지의 쌍이 다 맞거나 세 가지가 맞거나 하는데, 노동운동을 오래한 간부들의 경우 심지어는 한 가지도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한 가지만 맞는 경우도 있어서 참된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 혼란을 느끼고 있거나, 자신의 실제 성향과는 다른 외적으로 강제된 성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성격 검사를 통해 그런 사실을 진단해 낸 것도 큰 성과라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하는 계기도 되었다.

그리고 나서는 각 참가자에게 나온 성격유형 하나씩 짚어가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그렇게 각자의 성격유형을 이해하면서, 인간관계에서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열등 성향이 서로 부딪칠 때 갈등이 생긴다는 것과 그럴 때 자신의 열등 성향을 인정하기보다 타인의 열등 성향을 비난을 하게 되면서 갈등이 증폭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자신의 가

치관이나 행동양식을 기준으로 보면 타인의 모습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사과가 배에게 너는 왜 사과가 아니냐며 화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스꽝스런 일이다. 모두는 자기 안에도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된다. 따라서 서로 일치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서로 다르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임으로써 타인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서로 어떻게 보완적인 관계를 만들 것인지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을 계속하였다. 이 과정은 진행자의 일방적인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진단결과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가하느냐에 따라 참가자들의 수용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행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교육방식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진행자들이 먼저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성격검사의 의미나 실행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서로를 아는 마당 - 서로를 열고 나누어 하나의 큰 힘을

〈서로를 아는 마당〉은 앞 시간에 한 성격검사를 통해 나와 타인이 다르다는 기본적인 이해에서 출발하여 서로를 열고 나누는 과정에서 보다 큰 하나의 힘을 만들 수 있음을 체득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시간이 가능했다면 1박을 하면서 서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었는데, 참가자들의 조건이 그렇지 못하여 당일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썼다. 실제로는 분위기가 진지하고 이야기들이 길어지면서 새벽 3:00까지 진행되었다. 여기서 활용된 것은 총 6가지 체험 위주의 게임식 프로그램으로, 〈금전등록기〉, 〈지구촌 생존자〉, 〈수련회 계획짜기〉, 〈사진팔 만들기〉, 〈조개진 사각형〉 등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모의 게임을 해 본 후에 각자의 느낌을 이야기하여 그 의미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금전등록기〉는 참가자들에게 짧은 이야기와 그에 따른 질문이 적혀 있는 질문지를 준다. 그러면 그 이야기에 기초해 각자가 질문지(참고자료 참조)에 답을 하고, 그룹별로 힘을 모아 그룹의 답을 결정한다.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답을 한 것을 보면서 같은 이야기를 놓고도 서로 전혀 다르게 이해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우선, 우리의 언어습관의 문제로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입견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보다 객관적으로 정리되는 확인함으로써 혼자 의견보다 전체 의견 속에서 풍요로워질 수 있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구촌 생존자〉와 〈수련회 계획짜기〉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여기서는

2~3회에서 한 성격검사의 결과와 연관지어 성격에 따른 차이를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8가지 성격의 척도 중에서 사고 중심-감정 중심의 쌍을 변별기준으로 삼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진행한 다음 결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었다. <지구촌 생존자>(참고자료 참조)는 지구 최후의 날을 가상하여 살아남은 12명의 다양한 사람들 중에 7명의 생존자격을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는 것인데, 성격에 따라 선택하는 사람의 유형이 달라진다. 그러나 이번 교육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노조운동원 하는 간부들의 사고 유형은 본래의 성격과는 달리 많이 비슷해져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반면에 <수련회 계획짜기>는 노조에서 수련회를 간다고 가정하여 그 프로그램을 짜 보는 것이었는데 두 성격집단 간의 차이가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나서 참석자들 스스로가 흥미로 하였고, 성격검사의 의미를 보완해서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다음에는 같은 백락에서 <조개진 사각형>과 <사진말 만들기>를 하였다. <조개진 사각형>은 사각형을 원래 모양을 알아볼 수 없도록 참가자 수만큼 조각을 내어 아래의 엄격한 규칙 아래서 맞추도록 한다. 그림이 전체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작업을 완료하고 서로 느낌을 교환하는데 모두 함께 완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주지 못하고 고집할 때 전체의 작업이 늦어진다 등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체득하게 되는 것이다. <사진말 만들기>는 언어적인 작업으로 진행자가 여러 장의 사진을 제시하여 각자가 인상깊거나 마음에 드는 사진 한 장을 선택하도록 한다. 그리고 자신이 사진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는 각자 자신의 욕구에 따라 선택한 사진들을 통해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 보도록 한다. 여기서는 노동자들의 투쟁, 민중들의 고단한 삶의 모습 등 여러 가지 인상적인 사진을 통해 민중의 삶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교육에서는 이야기를 만들고 난 다음의 의미 정리가 부족하였다.

내일을 여는 마당 - 새로운 인간관과 나의 변화

<내일을 여는 마당>은 이번 자기발견교육의 성과를 집약하여 새로운 인간관과 자신에 대한 변화된 인식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방식은 4회처럼 게임식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을 몇 가지 해 보는 것이었는데, 대표적인 것 두 가지는 <난파선>과 마지막의 촛불 의식이었다. <난파선>은 다른 공동체 놀이 프로그램에서도 이미 많이 활용해 본 것으로, 배가 풍랑을 만난다고 가정하고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여 실었던 것을 하나씩 버려 가는 과정으로,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은 무엇을 중심적인 가치로 선택하는가, 또 소중했던 것을 버리는 가상의 경험을 통해 그 소중함의 정도를 환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다른 게임 프

로그램에 비해 이 대목에서 참가자들은 상당한 진지함을 보였다. 이전 <난파선>에서는 최후에 남은 하나까지 버리도록 했는데, 지식, 부모님, 새로운 세상, 아내 등을 버리게 되면서 도저히 버릴 수 없다는 소중함을 진심으로 느꼈으며, 그런 가치들을 지키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자각도 생겨났다. 이런 감정을 마지막의 촛불 의식으로 총괄 평가함으로써 이번 자발교육은 끝을 맺었다.

5. 약간의 평가

원래 이 교육을 조직할 때는 교육 방법 자체에 대한 평가과정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참가를 조직했는데, 다른 일정의 관계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진행자가 평가했던 내용을 보면 가장 부족했던 점은 진행자가 이 교육에 일관되게 담고자 했던 자신과 타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문제의식이 교육 속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나하나의 프로그램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고, 흥미로운 과정이었으나 하나의 실에 위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참가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인성이나 인간 관계의 측면에서 바라 볼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제기는 되었으나,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명확한 것이 없었다. 후속 프로그램이나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일회적인 교육으로 인간관계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방법적인 측면을 보면 게임을 통한 체험 위주의 교육이었기 때문에 강의식 교육에 비해 전혀 자루함이 없었다는 면에서 효과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의 몇 가지는 다른 교육의 공동체 프로그램에서도 응용해 본적이 있는 것이었으나, <자기발견교육>이라는 전체 틀 안에서 좀더 새롭게 받아들여지는 측면도 있었다. 또 하나의 방법론적인 강점은 기존의 교육이 답이 무엇이나, 해답은 이래야 한다 등 답에 치중을 두고 있어서 참가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있었는데, 이 교육은 정해진 답이 없고 모두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부담이 적었다. 또 정답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줌으로써, 새롭게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강력한 문제제가 효과가 있었다.

또 이 교육의 성격상 인간관계 면에서 굉장한 친화력이 있었다. 한번의 숙박교육도 없었고 일주일에 한번씩 5회 과정으로 진행되는 교육에 참가한 사람들끼리 깊은 신뢰감을 갖거나 친밀감을 갖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이 교육의 참가자 중에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의 간부도 있었고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의 간부도 있어서 일정한 거리감이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속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벽이 크지 않음을 이

해하고, 신뢰 속에서 자신의 내면적인 교충을 드러낼 수 있었다. 특히 새벽 3시까지 진행되었던 4회의 <서로를 이는 마당>프로그램은 뒤풀이를 통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인간 관계를 트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6. 맺는 말

최근 들어 학교교육에서도 지식위주의 한계가 논의되면서 인성을 중심으로 교육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열린학교, 생태학교, 실험학교 등 다양한 교육 형태들이 모색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한편 이런 노력을 거시적인 시각에서 볼 때, 경쟁과 그로 인한 도태를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 구조와 제도의 근본적인 변혁 없이 개별적인 노력으로 인간의 본성을 찾을 수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인성교육이나 인간의 감성 및 관계적인 측면에 접근하는 교육은 자칫 구조적인 문제해결의 고리를 놓치고, 부분적인 해결을 위해 헛수고를 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인 극복이 문제해결의 선차적인 방안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인간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구조만의 변화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선차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노동운동에 참여하는 사람, 집단, 조직의 본성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적 대안을 만들려는 노력은 노동운동진영의 분명한 과제이다.

이 <자기발견교육>은 그런 인성교육이 노동교육 속에서도 가능하다는 믿음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충분히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사목 실무자들의 고민처럼 인성교육의 본질에 대한 천착 없이 단순히 몇 가지를 방법적으로 차용하는 것은 오히려 인성교육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노동교육의 목표를 흐릴 수도 있다. 따라서 진행자가 누누이 강조하였던 것처럼, 인성이나 인간관계에 접근하는 교육은 지식을 다루는 것보다 훨씬 섬세하게 인간의 내면에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자나 교육담당자의 자질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된다.

교육자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고 참가자들의 정서적 흐름을 어떻게 파악하여 움직여 나가느냐에 따라 교육적 성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 노동교육담당자들의 집단적인 훈련과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1】〈금전등록기〉의 질문지

한 상인이 상점 안에 전기불을 켜둘 때 한 남자가 나타나 돈을 요구했다. 주인이 금전등록기를 열었다. 그 금전등록기에 들어 있던 것이 꺼내어 졌고 그 남자는 재빨리 사라졌다. 한 경관에게 즉시 통보되었다.

1. 주인이 자기 상점 전기불을 켜둘 때 한 남자가 나타났다.
예 아니오 ?
2. 그 남자는 남자였다.
예 아니오 ?
3. 금전등록기를 연 남자는 주인이었다.
예 아니오 ?
4. 상점 주인이 금전등록기에 들어 있던 것을 꺼내 가지고 달아났다.
예 아니오 ?
5. 누군가가 금전등록기를 열었다.
예 아니오 ?
6. 돈을 요구한 남자가 금전등록기에 들어 있던 것을 꺼내 가지고 달아났다.
예 아니오 ?
7. 금전등록기에 돈은 있었으나 이야기 내용에서는 그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예 아니오 ?
8. 그 남자는 주인의 돈을 요구했다.
예 아니오 ?
9. 이야기의 내용에 나오는 사람들은 오직 세 사람뿐이다. 즉, 상점주인, 돈을 요구한 남자, 그리고 경관.
예 아니오 ?
10. 이야기 중 다음 내용은 사실이다. 어떤 사람이 돈을 요구했고 금전등록기가 열렸으며 그 안에 있던 것이 꺼내어졌으며 한 남자가 상점 밖으로 달아났다.
예 아니오 ?

개인의 점수 :

그룹의 점수 :

【참고자료 2】〈지구촌 최후의 생존자〉 진행 순서

1. 상황제시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원치 않는 제3차 세계대전이 세계의 이윤을 독점하려는 사 람들에 의해서 발발되었습니다. 5대양 6대주가 방사능과 화염에 휩싸이며 지구촌은 그 최후를 맞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땅위와 땅속에 살고 있는 동물과 식물,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삼시간에 없

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어느 경우에서나 있기 마련입니다. 때가 된 지구의 피후성이 속에서도 꼭 일부 사람의 생명이 건재하여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지하 깊숙한 연구실에서 지구 최후의 이남을 대비하여 연구를 거듭해왔던 한 과학자의 "캡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인간의 생존을 보장하고 있는 현대 과학의 완전한 결정체인 "캡슐"로 지구의 마지막 생존자이며 미래 지구촌의 새 역사적 주인공의 구출작업을 펴기 시작하여야 하였습니다.

지구촌의 유일한 생존자 12명을 공개합니다.

- ◆ 물리학도
- ◆ 상습 미약중독자인 임산중의 물리학도 부인
- ◆ 칠십 고령의 종교지도자(신부, 목사)
- ◆ 35세의 남성노동자
- ◆ 기계부문 기능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남자
- ◆ 유명한 의사
- ◆ 16세의 여자 중학생
- ◆ 능력 있는 기업가
- ◆ 트럭 운전기사
- ◆ 무장한 경찰
- ◆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
- ◆ 유명한 지적인 여배우

2. 개인활동

"캡슐"엔 참가자 자신을 포함해서 여덟 사람만 승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생존자 인명자료를 보고 7명을 임선하도록 한다.

캡슐에 탈 수 없는 5명을 적고, 각 사람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3. 그룹활동

사고 지향파 감정 지향파의 두 성격그룹으로 나눈다.

개인활동과 마찬가지로 캡슐에 탈 수 없는 5명을 결정하고 그 이유를 적도록 한다.

그룹의견을 발표하기 위해 정리하도록 한다.

4. 전체 토의

각 그룹의 의견을 발표한다.

각 그룹 결정사항을 발표하고 두 그룹의 차이점을 비교하게 한다.

5. 느낀 나누기

자기의견과 그룹의견, 전체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을 교환한다. ◆